

2017년 상반기



해외출장 가이드

폴란드 바르샤바 출장자료

【 목 차 】

I. 폴란드 이해하기 1

1. 한 눈에 보는 폴란드 / 1
2. 정치동향 및 특성 / 2
3. 경제 동향 / 7

II. 우리나라와의 관계 21

1. 무역 동향 / 21
2. 투자 동향 / 22

III. 비즈니스 출장 가이드 24

1. 시장특성 및 상거래 관행 / 24
2. 바이어 접촉시 유의사항 / 25
3. 출입국 및 통관 요령 / 28
4. 폴란드 체류 안내 / 29





I. 폴란드 이해하기

1. 한 눈에 보는 폴란드

국명	폴란드공화국 (The Republic of Poland)
건국(독립일)	1918년 11월11일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3국 분할 시대 종료)
위치	중부유럽 (북위 49~54도, 동경 14~24도) -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러시아와 접경
면적	312,685Km ² (한반도의 1.4배)
기후	유럽서부의 해양성 기후와 동부의 대륙성 기후
수도	바르샤바 (Warszawa, Warsaw)
인구	3,840만 명 (2015년)
정부형태	의회공화제(Parliamentary Republic)
국가원수	대통령 : 안제이 두다 (Andrzej Duda) '15.8.6 취임 총 리 : 베아타 쉬드워(Beata Szydlo) '15.11.16 취임
정당	여당 : PiS (법과정의당), 정부성향 : 보수
입법부	양원제 (상원 100석, 하원 460석)
주요도시	바르샤바(172만), 크라쿠프(76만), 우츠(74만), 브로츠와프(63만), 포즈난(55만), 그다인스크(46만), 슈체친(40만), 비드고슈체(35만), 루블린(35만), 카토비체(31만)
민족(인종)	폴란드인 (서슬라브계의 한 족속인 POLANIE의 자손) 93.7% 기타 독일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 등 * 유대인(1만5천명)
언어	폴란드어 (슬라브어 계통)
종교	로마 카톨릭(97%), 기타 그리스 정교. 프로테스탄트교 등(3%)
화폐	Złoty(즈워티, 약자는 zł 또는 PLN)
환율	1US\$: 3.95 PLN, 1EUR : 4.36 PLN (2016년, 연 평균)
명목GDP	US\$ 4,767억(2015년), 1인당 US\$ 26,608
산업구조	농업 3.4%, 공업 29.2%, 서비스업 63%
무역	2016년: US\$ 2,025억(수출), US\$ 1,973억(수입) · 수출 : 철강, 구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석유, 육류, 목재, 펄프, 기계, 전자제품 부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수입 : 기계, 전자제품 부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철강, 알루미늄, 광물성 연료, 석유, 광학 및 의료기기, 의약품/유기화합물
교민	약 1,156명으로 78%가 주재 상사원이며, 장기체류허가 교민은 약 300여명. 바르샤바 504명, 브로츠와프 448명, 크라쿠프 37명, 기타 167명



2. 정치동향 및 특성

□ 최근 주요 정치 현안

○ 2015년 8월 6일, 신임 대통령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취임

- '15.5.24일, 법과 정의당(PiS, 제 1야당) 후보인 안제이 두다가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을 꺾고 6% 차이로 당선
- 이로써 89년 공산주의 붕괴 후 6번째 대통령이자, 43세로 최연소 대통령으로 오르게 됨. 2010년 정치에 입문, 정치 이력이 길지 않은 신예로 선거 운동 초기 60% 이상의 지지율로 재선이 확실히 되던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을 꺾고 당선됐다는 것에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유로존 가입 반대, 반 러시아 성향으로 평가되는 안제이 두다 후보의 주요 공약은 1) 보건 제도개혁(주 단위 복지예산 편성), 2) 퇴직연령 상향조정 반대, 3) EU와의 관계에서 자주적이고 폴란드 이익을 고려한 정책 지향, 4) 폴란드 내 NATO군 주둔 요구, 5) 교육제도 개선(교과과정 조정), 6) 내수경기 진작 (양육수당 지급, 법인세 인하, 중소기업 세제혜택 등) 등 경기 활성화와 국제사회에서 폴란드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움

○ 2015년 10월 25일 총선, 보수야당 8년만에 정권 교체

-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보수 성향의 법과정의당(PiS)가 8년간 집권당이었던 중도 성향의 시민연단(PO)를 제치고 승리
- 의석 460석 중 PiS당이 242석, PO가 133석을 차지하면서 PiS는 1989년 폴란드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단독 정부를 구성하게 됨.
- 승리 요인으로는 친 EU 성향의 시민연단(PO)집권하에 폴란드는 지난 8년간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이뤘으나, 대다수 폴란드인들은 경제성장에서 실질적으로 얻은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약 200만명이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서유럽 등지로 떠나면서 폴란드가 극우 성향의 PiS를 지지하게 된 것으로 분석됨.

○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동유럽 최초 EU 상임의장 선출에 이어 연임 결정

- 2014년 12월 1일부터 현재 EU 상임의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재선출

확정(' 17.3.9일)에 따라 2019년 11월 31일까지 상임의장직 수행 예정

- 특히 이번 재선출 과정에서 도날드 투스크는 모국인 폴란드를 제외한 전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으며, 폴란드는 도날드 투스크와 정치적 이견을 보이며 야체크 사리우스-볼스키(Jacek Saryusz-Wolski)를 새 후보로 내세우는 등 도날드 투스크의 연임을 반대해왔음.

□ 정치 개황

- 폴란드의 정치 체제는 기본적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에 기초하며, 폴란드의 행정부는 대통령과 내각으로 구성.
 -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며 임기 5년, 2회 연임이 가능하고,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해 국정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역할 수행
 - 총리는 각료회의의 수장으로서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수행하는데, 대통령이 하원 다수당과 협의하여 지명
 - . 총리 지명자가 내각을 구성한 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하원이 이를 인준
 - . 총리는 하원에만 책임을 지며, 대통령은 총리 해임권이 없음.
- 2005년 대통령선거와 총선 이후 과거 공산시대에 뿌리를 둔 정치세력 몰락
- 2015년 5월 24일, 대통령 선거에서 43세의 최연소 대통령, 안제이 두다 당선
 - EU내에서 자주적인 폴란드의 목소리를 내고자, 유로존 가입 반대를 주창
 - 반 러시아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
- 신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아래와 같음
 - 국민건강기금(NFZ)을 폐지하고, 주(州) 예산에 복지부분 예산을 별도 편성, 보건제도 개혁 추진
 - 연금 수령액이 적어지는 문제로 퇴직연령 상향조정(67세)에 반대, 원상복귀(남자 65세, 여자 60세)를 주장
 - EU와의 관계에서, 폴란드 이익을 고려한 자주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강조
 - 동맹을 통한 안보강화를 강조, 폴란드 내 NATO군 주둔 요구 및 군 현대화 추진



- 기업 세제혜택(법인세 인하, 3인 이상 중소기업 세제혜택), 양육수당 지급 및 신혼가구를 위한 저가주택 공급 등 경기 활성화 및 내수진작, 복지 제고

□ 대외관계

- 폴란드는 1999년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을 함으로써 국가 안전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받았으며, 2004년 5월 유럽연합(EU)에 가입되어 서구 경제권으로 재편입
- NATO와 EU 가입은 폴란드에게 있어 군사적인 안전과 경제적 발전의 틀을 구축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는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
 - NATO에서는 안보투자프로그램(NSIP)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 말 기준, 24억 9,800만 즈워티(약 6억 4,700만US) 규모의 129개 사업에 투자, 폴란드는 국방 관련 자금 확보 및 기술이전의 기회로 활용
- 경제외교 강화의 일환으로 국가이미지 홍보를 강화 중으로 특히, 2012년 6월 ‘유로 2012’를 우크라이나와 공동개최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 독일과는 2010년 폴란드 총선 이후(친 EU정책) 전 독일 외무장관인 베스터벨레의 대 폴란드 친선외교 정책 및 양국정상 우호관계가 이어지고 있으며, 메르켈 총리의 조부가 폴란드 포즈난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폴란드인들이 특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
- 법과정의당(PiS)당, 독자적인 폴란드 힘을 기르는 데 주력, 반 EU 성향
 - 최근 유럽 난민유입에 대해 이민 반대성향을 보이는 스위스 국민당(SVP)의 승리 외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에서도 극우 정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앞서 그리스, 스페인 경제위기 사태 및 EU의 회원 각 국에 부과하는 엄격한 예산 적자제한 정책, 높은 실업률, EU내에서도 특정 국가들만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EU통합 회의론 등이 그 배경으로 분석됨.



○ Brexit가 폴란드에 미치는 영향

-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영국 EU 탈퇴 국민투표 결과, 예상을 뒤엎고 브렉시트가 결정된 가운데 폴란드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우선 영국은 폴란드 수출 전체 규모에서 제 3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수출국이며, 영국에 있는 폴란드 이민자 비율이 매우 높아 이번 브렉시트 결정은 향후 폴란드 경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경우, 폴란드 수출업체는 크든 작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EU라는 공동시장 내에서는 무역이 훨씬 수월하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면 자유무역지역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관세와는 별도로 규제와 비관세 장벽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폴란드 입장에서는 영국 내 존재하는 다수의 이민자가 받게 될 영향이 제일 큰 우려. 국가통계국(ONS)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는 85만 명의 폴란드인이 있으며, 그들은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영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분포해 있음. 폴란드인은 영국에 있는 EU 국적 이민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런던에만 18만 5천명이 거주 중
- 비자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영국에 남게 된다 하더라도 노동허가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영국에 진출한 폴란드 회사들에게도 문제가 될 것. 분명 Brexit는 영국 내 폴란드인들과 폴란드에 거주하는 그들의 가족을 포함해 수백만의 폴란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탈퇴가 이루어지기까지 2년간의 협상시기가 있지만, 이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그리 충분한 시간은 아님.
- 또한, 폴란드는 EU기금의 최대 수혜국이라 자부할 만큼 많은 금액을 배정받았는데, 영국이 이 기금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하므로(독일 다음)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향후 폴란드가 수혜받을 EU 기금 지원액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함.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EU기금 2기(2014-2020)의 운영 자체가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영국의 탈퇴여부와 무관하게 차기 EU기금에서 폴란드가 수령할 수 있는 비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폴란드-우리나라와의 관계

- 1989.4.13일 KOTRA에서 바르샤바 무역관을 개소한 이후, 1989.11.1일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같은 해 11월 27일 주 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을, 1990년 1월 주한 폴란드 대사관을 개설함.
- 양국은 수교 이후 줄곧 정치·외교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1994년 12월 대통령 레흐 바웬사(Lech Walesa)의 방한과 1996년 5월 이수성 전 국무총리의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함.
- 2013.10.22일에는 폴란드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유럽 정상으로 첫 국빈 방한함. 2004년故 노무현 대통령 폴란드 방문 시, 양국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Future-oriented partnership) 수립 이후 ‘전략적 동반자관계’ (Strategic Partnership, ‘동맹’ 바로 전 단계)로 양국관계를 격상하며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 폴란드는 또한 남북 정전협정 이행여부를 확인, 감독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4개국(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 중 하나임. 그러나 북한의 중감위 무실화 책동에 의해 체코 대표단은 1991년 4월에, 폴란드 대표단은 1995년 3월에 본국으로 강제 축출되어 현재는 유엔군 측에서 지정한 스웨덴, 스위스 국가 요원들만이 한국에서 중감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폴란드 대표단은 북한의 불법적인 축출 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 폴란드 내에서 중감위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분기 1회 판문점 회의에 참석하여 중감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3. 경제 동향

□ 경제현황 및 전망

○ 개관 : EU 가입 이후 플러스 성장 지속

- 폴란드는 2004년 유럽연합 가입 이후 유럽연합 역내 수출의 증대와 꾸준한 외국인 투자의 유입, 활발한 건설 및 인프라 투자로 인한 내수 경기의 성장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 특히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시에도 유럽연합 회원국 중 유일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도 당시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경제 성장률(1.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
- 그러나 2012년에는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 내수 건설 경기 하락 등의 영향으로 기존 경제성장 전망치인 2.5~2.7%에 못 미치는 연 평균 1.9%의 성장을 보임. 2013년에도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1분기 0.5%, 2분기 0.7% 성장에 그쳤으나, 하반기부터 내수와 산업 회복으로 인해 3분기 2.3%, 4분기 3.0%로 2013년 GDP는 1.6% 성장함.

<폴란드 거시경제 지표(2014-2016)>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명목 GDP (십억 US\$)	545.3	476.7	470.3
실질경제성장률 (%)	3.3	3.9	2.8
1인당GDP (US\$, PPP)	25,379	26,608	27,752
물가상승률 (HICP기준, %)	0.1	-0.9	-0.7
실업률 (% , 연평균)	12.3	10.5	9.0
금리 (% , 연말기준)	2.5	1.7	1.6
수출 (십억 US\$, FOB)	210.7	191.1	195.4
수입 (십억 US\$, FOB)	-215.0	-188.6	-193.6
무역수지 (십억 US\$)	-4.3	2.5	1.8
연평균 환율 (US\$대비)	3.15	3.77	3.95
연평균 환율 (EUR대비)	4.18	4.18	4.36
정부재정적자 (GDP대비%)	-3.3	-2.6	-2.7

* 주 : 각 년도 연평균 환율 적용

* 자료원 : 폴 중앙통계청, Economist Intelligence Unit 'Poland Country Report'



-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 경제제재의 여파로 대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CIS 지역에 대한 폴란드의 수출이 각각 약 25%, 10% 감소하였으나, 폴란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미미하여, 우려했던 바와 달리 큰 타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서유럽 주요 교역국의 경기 회복세와 내수 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2014년 GDP 성장률은 EU 국가 중 아일랜드(3.6%)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3.3%의 성장률을 기록함.
- 2015년에는 세계 주요 기관 및 폴란드 중앙은행에서 전망한 3% 초반의 경제성장 전망을 상회하는 3.9% 기록. 특히 4분기에는 10월 말 총선 및 연말연시 호재로 가계소비가 전년대비 3.1% 증가하였고, 고정투자도 전년대비 5% 성장, 순수출이 0.3p% 증가한 것이 안정적인 GDP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다만, 금융서비스 부분의 침체와 예상보다는 침체된 내수가 일부 산업 품목의 재고에 영향을 미침.
- 2016년에는 주요 기관에서 3% 중반대로 전망하였으나, 폴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2.8% 성장으로 잠정 집계됨. 이는 4분기 가계 지출 및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과 투자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2017년 GDP 성장률 3.2~3.3% 예상

- 2016년 3, 4분기에 각각 2.5%, 2.7% 성장에 그쳤지만, 2017년에는 2016년 2.8% 성장을 조금 웃도는 3.3% 전후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여러 외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보육지원정책이 가계소비 및 개인투자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16년 9월부터 경기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면서 물가상승률이 지난 ' 16.12월 0.8%을 기록하였고, 실업률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8% 초중반대를 유지해오고 있음. 또한, 2017년까지 EU기금 지원에 따른 프로젝트 발주가 가장 활발히 이어질 예정이어서 인프라, 건설, 교통 등 관련 산업들이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됨.



<주요 기관별 폴란드 2017년 GDP 성장률 전망>

연번	기관명	GDP 성장률(%)	최종발표일
1	World Bank	3.1	2017.01
2	IMF	3.4	2017.01
3	European Commission	3.2	2017.02
4	폴란드 중앙은행 (NBP)	3.7	2017.03
5	OECD	3.2	2017.03
6	EBRD	3.2	2016.11
평균		3.3	

* 자료원 : 각 기관 자료 종합

○ 다른 EU 회원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

- EU위원회(EC)에서는 2017년 2월, 2017년 폴란드 경제성장률을 전년대비 0.4%p 높은 3.2%로 전망하면서, GDP 성장률이 EU 28개국 중 루마니아(4.4%), 룩셈부르크(4.0%), 몰타(3.7%), 헝가리(3.5%), 아일랜드(3.4%)에 이어 6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2017년 EU 28개국 GDP 평균 성장률이 1.8%로 전망되면서 이와 비교하여 약 2배 가까운 성장률임.

<2015-2018년도 주요 EU국 GDP 성장률 예상 및 전망(%)>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독일	1.9	1.6	1.8
스페인	3.2	2.3	2.1
프랑스	1.2	1.4	1.7
영국	2.0	1.5	1.2
이탈리아	0.9	0.9	1.1
그리스	0.3	2.7	3.1
슬로바키아	3.3	2.9	3.6
체코	2.4	2.6	2.7
헝가리	1.9	3.5	3.2
폴란드	2.8	3.2	3.1
유로존 18개국	1.7	1.6	1.8
EU 28개국	1.9	1.8	1.8
세계	3.0	3.4	3.6

* 자료원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17', 2017.2

- 폴란드 ' 16년 초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후 ' 16년 말 등급 전망 상향 조정
 - 최근 몇 년 간 안정적인 폴란드 국정운영 능력, 견실한 경제성장세에 각 신용등급 기관에서는 폴란드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평가해왔으나, '15년 10월 8년 만에 여당이었던 극우 성향의 PiS(법과정의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 제한, 공영방송의 정부 개입 등 정부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신용평가기관 S&P는 폴란드의 신용등급을 A-에서 한 단계 강등한 BBB+로, 등급 전망 역시 ' 부정적 '으로 조정
 - S&P사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중앙정부 및 시중은행의 손실 대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며, 정부 정권 교체로 즈위티 환율이 주요 통화 대비 하락하면서 부채 문제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S&P측은 ' 16년 12월, 단기적으로 폴란드 주요 기관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고, 2016년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낮았지만 국가 예산 상황은 악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용등급은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당초 '부정적' 에서 '안정적' 으로 상향 조정함.

<기관별 폴란드 국가 신용 등급 및 전망>

기관	S&P	Fitch	Moody's
등급	BBB+	A-	A2
전망	Stable	Stable	Negative
발표일	2017. 4. 21.	2017. 1. 13.	2016. 5. 14.

* 참고 : '발표일'은 공식적으로 각 기관에서 등급을 조정 또는 유지를 발표한 날임.

□ 무역 동향

- 과거 교역규모는 연 10%대의 고속 성장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적자를 지속해왔으나 2015년부터 흑자 전환 달성
 - 폴란드의 수출입은 미국 발 금융위기로 감소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1%의 높은 성장을 보임
 -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수출과 수입은 각각 연평균 8.1% 성장한 1,902억US\$와 6.2% 성장한 2,123억US\$를 기록하며 폴란드 내수 경제의 빠른



성장을 입증

- 그러나 2012년 유로존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폴란드의 수출입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2년 총 수출액은 미화기준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한 1,827억US\$, 수입은 이보다 더 크게 줄어 전년보다 6.5%가 감소한 2,123억US\$를 각각 기록. 2013년 수출은 2,119억불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고 수입은 2,091억US\$로 5.8% 증가. 2014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금수조치로 인해 특히 폴란드 농산물 수출이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았으나, 수출 다변화를 통해 예상보다 큰 충격이 없었으며 오히려 아시아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는 계기가 됨. 폴란드 통계청(GUS) 개도국 수출이 전년대비 12.6%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무역 적자폭이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무역적자폭 감소세를 보이던 폴란드는 2015년에 접어들어 23억 유로로 최근 10여년 만에 처음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대 러시아 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수출이 2.2% 증가한 반면 수입은 0.4% 증가에 그치면서 약 47억 유로 무역흑자 달성

<폴란드 수출입 현황 및 중장기 전망>

(단위 : 십억 US\$)

구분	2016 ^a	2017 ^b	2018 ^b	2019 ^b	2020 ^b	2021 ^b
수출(FOB)	195.4	201.5	202.5	209.7	222.3	237.6
수입(FOB)	193.6	206.0	208.5	219.7	235.0	250.0
경상수지	-2.5	-5.9	-7.8	-11.0	-13.4	-12.0

* a : 추정치 b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예측치

* 자료원 : Forecast summary, Economist Intelligence Unit, 'Poland Country report', 2017.3.28

- EIU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도 수출입 교역 규모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다소 심화될 것으로 보임.
- EU회원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편, 비유럽 개발도상국과도 교역 증가 추세
 -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유로존 경제위기 이후 수출에서 EU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79%에서 2012년 76%, 2013년 74%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14년 77%, 2015년 79.4%, 2016년 79.7%로 인근국 무역 의존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

- 2012년부터는 중국 등 비유럽 개발도상국과의 교역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CIS와의 교역도 증가하는 추이였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CIS 지역과의 교역은 감소세로 돌아섬.

<폴란드 대외 교역규모 지역별 증감률 및 비중(US\$ 기준)>

구분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y/y, %)	전체 대비 비중(%)	
		2015년	2016년
수출			
선진국	2.2	85.7	86.2
-EU국가a	2.0	79.4	79.7
-유로존국가b	1.8	56.4	56.6
비유럽개발도상국	-6.2	9.0	8.3
중동부유럽국c	6.3	5.3	5.5
수입			
선진국	2.0	66.9	67.9
-EU국가a	1.8	60.0	60.9
-유로존국가b	2.0	47.9	48.7
비유럽개발도상국	1.3	24.5	24.8
중동부유럽국c	-14.9	8.6	7.3

* a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b :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c : 알바니아, 벨라루스, 몰도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GUS) 'Foreign trade turnover in total and by countries', 2017.2.15

- 폴란드 통계청에서는 유로화 기준 2016년 폴란드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3% 성장한 1,836억 유로, 수입은 0.9% 증가한 1,789억 유로로 무역수지는 약 47억 유로 흑자로 추산하고 있음.
- 2016년 US\$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대비 수출은 1.7%, 수입은 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특히 대 러시아 수입은 2015년 -38.6% 감소한데 이어 2016년에도 -19.6% 감소를 기록. 대 러시아의 금수조치 이후, 폴란드에서는 수출을 다변화하면서 앞으로도 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CIS 지역과의 교역은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폴란드 교역 규모 상위 10개국>

수출					
순위	국가명	2016년		전체 대비 비중(%)	
		mln US\$	%, y/y	2015년	2016년
1	독일	55,696.2	2.4	27.1	27.3
2	영국	13,440.8	-0.6	6.7	6.6
3	체코	13,379.7	0.5	6.6	6.6
4	프랑스	11,204.0	0.8	5.5	5.5
5	이탈리아	9,819.0	1.2	4.8	4.8
6	네덜란드	9,109.9	2.6	4.4	4.5
7	스웨덴	5,889.6	7.3	2.7	2.9
8	러시아	5,787.2	1.6	2.9	2.8
9	스페인	5,548.7	5.7	2.6	2.7
10	헝가리	5,360.5	0.4	2.7	2.6
총계		135,235.6	(평균) 2.2	65.5	66.2
수입					
순위	국가명	2016년		전체 대비 비중(%)	
		mln US\$	%, y/y	2015년	2016년
1	독일	46,382.3	2.4	22.9	23.4
2	중국	23,945.1	4.9	11.6	12.1
3	러시아	11,559.9	-19.6	7.3	5.8
4	이탈리아	10,558.6	-1.0	5.4	5.3
5	네덜란드	7,785.9	4.9	3.8	3.9
6	프랑스	7,621.8	0.1	3.8	3.8
7	체코	7,193.2	4.3	3.5	3.6
8	영국	5,637.1	7.2	2.7	2.8
9	미국	5,245.6	8.8	2.4	2.6
10	벨기에	5,178.9	-3.4	2.7	2.6
총계		131,108.4	(평균) 0.9	66.8	66.0

*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GUS) 'Foreign trade turnover in total and by countries', 2017.2.15



- 주요 교역국 10개 국가 중, 특히 독일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상당히 큰 편임. 2016년 기준 전체 교역 규모에서 수출은 27.3%, 수입은 23.4%의 비중을 차지하며 각각 전년 대비 0.2%p, 0.5%p 증가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초까지는 대 폴란드 교역국 9~10위에 있었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 10위권밖에 머물고 있음.

○ 기타 공산품과 화학약품 및 관련 제품의 교역규모 증가 추세

- 품목별 수출입을 살펴보면, 규모로는 전통적으로 기계류 및 운송기기, 공산품, 화학 원료 등이 교역품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함.
- 수출입 품목들이 전반적으로 증가세이며 특히, 기타 공산품은 14년, 15년에 이어 16년에도 교역규모가 증가하였고, 폴란드 내 화장품 시장 확대 등에 힘입어 화학약품 및 관련제품의 수출입이 확연히 증가한 모습 실현

<SITC 분류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PLN, %)

품목	수출			수입		
	'15년	'16년	증감율	'15년	'16년	증감율
식품 및 동물	81,419.0	87,469.9	7.4	53,995.5	59,210.9	9.7
음료 및 담배	12,200.9	11,851.9	-2.9	5,497.3	5,973.1	8.7
원자재(연료제외)	17,049.1	16,730.5	-1.9	23,302.8	24,156.3	3.7
광물연료, 윤활유	24,344.7	19,928.0	-18.1	53,644.9	46,667.1	-13.0
동식물오일, 지방, 왁스	2,110.0	2,222.0	5.3	2,633.4	3,146.4	19.5
화학약품 및 관련제품	66,267.8	73,017.8	10.2	103,805.3	114,613.7	10.4
공산품	141,982.3	148,143.6	4.3	128,767.5	139,045.3	8.0
기계류 및 운송기기	288,765.6	304,215.9	5.4	270,758.2	277,643.6	2.5
기타 공산품	115,359.6	132,478.0	14.8	88,001.4	97,884.7	11.2

*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GUS), 'Statistical Bulletin No12/2016, 2017.1.25.

○ 2016년 폴란드, 매우 양호한 FDI 유치 실적 기록

- 폴란드의 FDI 유치는 EU 가입 이후 급증하였고,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EU국가 중 유일한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하는 등 견고한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믿음에 힘입어 2010년, 2011년 FDI는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임.
- 2015년 폴란드는 유럽 및 인근국 FDI 유입 점유율에서 3%로 전년대비 4계단 떨어진 9위를 기록. 2015년 FDI로 투자된 프로젝트 수로는 폴란드가 188개로 '14년 대비 4% 증가함.

'15년 유럽 FDI 유입 점유율		
국가	점유율 (%)	유입액 (10억US\$)
영국	34	53.3
러시아	7	11.6
스페인	7	10.4
프랑스	5	7.1
독일	4	6.8
네덜란드	4	5.8
터키	4	5.8
아일랜드	4	5.5
폴란드	3	5.3
세르비아	3	4.4
기타	26	40.5
총계	100	156.5

Table 1

FDI INTO EUROPE BY PROJECT NUMBERS 2015		
Country	Projects 2015	% change
UK	974	3%
Germany	364	-54%
France	356	-1%
Spain	227	-19%
Belgium	192	40%
Poland	188	4%
Russia	179	33%
Ireland	178	4%
Netherlands	166	-2%
Turkey	147	47%
Other	1078	-8%
Total	4049	-9%

Source: FDI Markets Note: Percentages rounded up/down

* 자료원 : fDi Intelligence, 'The fDi report 2016'

- 2016년에는 총 64개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2008년 이후 최고 투자액인 총 17억 4,500백만 유로를 유치하였음. 주요 투자지역은 돌르노 실롱스크, 마조비에츠키, 마워폴스키, 실롱스크 순이며, 주요 분야로는 비즈니스 아웃소싱, 자동차 부품, R&D, 항공, 식품 등임.

○ 2017년 올해 폴란드 FDI 유치는 지난 해 수준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기대

- 폴란드 무역투자청(PAIIH)에 따르면 현재 지원 중인 투자 프로젝트는 약 200여 건으로, 투자액이 총 40억 유로 규모에 달함. 올해도 지난 해에 이어 Daimler사, LG Chem사와 같은 대규모 폴란드 투자실적이 이어지는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폴란드 FDI,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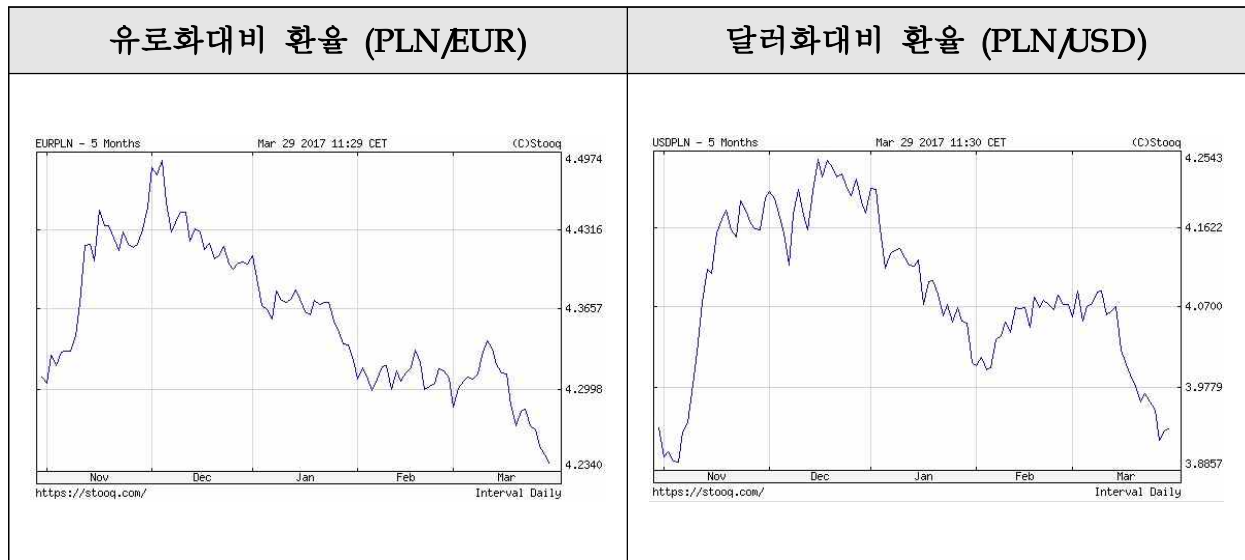
-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발간한 2015년 세계 투자 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 2015)에 따르면, 2013년 전 세계 조사대상국 중 FDI투자처 34위였으나, 2014년 조사 전체 대상국 중 20위, 개발도상국 중 10위로 오른 것으로 조사함. 전 세계적으로 FDI 투자액이 전년대비 -16% 감소한 것에 비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Ernst & Young의 FDI투자로 인해 2014년 고용건수는 전년대비 12% 성장한 15,485건으로 집계함. EU국 중 매력적인 투자처로는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지목함.
-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중 가장 큰 경제규모와 큰 내수시장, 정치적 안정 및 서유럽 주요시장으로의 용이한 접근성, 그리고 우수한 노동력과 낮은 인건비 등이 강점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투자처로 꼽힘. 1995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3.4%를 보이는 ‘비셰그라드(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중동부 4개국을 이끄는 주요국으로 아시아와의 교역도 활발히 지속하고 있음.
- 또한 2014~2020년 EU 기금 최대 수혜국으로, 결속기금 232억 유로를 포함, 총 890억 유로가 폴란드에 배정, 정부 및 민간 투자 증가가 예상
- EU 기금이 배정되는 운영 프로그램(OP) 대표 사업으로 1) 인프라 및 환경, 2) 스마트개발, 3) 지식·교육개발, 4) 폴란드 동부지역 개발, 5) 기술지원, 6) 디지털 폴란드로, 교통 인프라, ICT, 환경, 공항개발 등의 분야에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이어질 것

□ 환율

○ 즈위티화 환율 변동 추이

- 2016년 연평균 즈위티 환율은 유로 대비 4.36, 달러화 대비 3.95
- 2016년 10월부터 유로화 및 달러화 등 주요 통화대비 즈위티화 가치 급락. 달러화 강세 지속으로 즈위티는 2002년 이후 달러화 대비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5개월 간 유로화/달러화 대비 즈워티화 환율 변동>



* 자료원: www.stooq.com, 2017.3.28.

<달러/유로화 대비 즈워티화 연평균 환율 변동 전망>

구분	2016년	2017년 ^b	2018년 ^b	2019년 ^b	2020년 ^b	2021년 ^b
PLN/USD	3.95	4.16	4.13	3.97	3.86	3.75
PLN/EUR	4.36	4.42	4.40	4.40	4.35	4.31

* b : EIU 전망치

* 자료원: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Poland’, 2017. 3. 28.

○ 금리 : 폴란드 중앙은행, 2015.3.5일 역대 최저 금리인 1.5%까지 낮춰

- 2014년 폴란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1.0% 하락한 0.1%를 기록, 2014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디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어 음.
- 내수 진작과 EU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폴란드 중앙은행은 2015년 3월 5일, 역대 최저 금리인 1.5%로 기존 금리를 0.5%p 하향 조정함. 이후 폴란드 경제 안정과 거시경제 균형을 위해 더 이상의 금리 인하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음.



<폴란드 중앙은행 금리 동향(%)>

날짜	정책금리	롬바드금리	예치금리	재할인율
2012. 5. 10	4.75	6.25	3.25	5.00
2012. 11. 7	4.50	6.00	3.00	4.75
2012. 12. 6	4.25	5.75	2.75	4.50
2013. 1. 10	4.00	5.50	2.50	4.25
2013. 2. 7	3.75	5.25	2.25	4.00
2013. 3. 6	3.25	4.75	1.75	3.50
2013. 5. 9	3.00	4.50	1.50	3.25
2013. 6. 6	2.75	4.25	1.25	3.20
2013. 7. 4	2.50	4.00	1.00	2.75
2014. 10. 9	2.00	3.00	1.00	2.25
2015. 3. 5	1.50	2.50	0.50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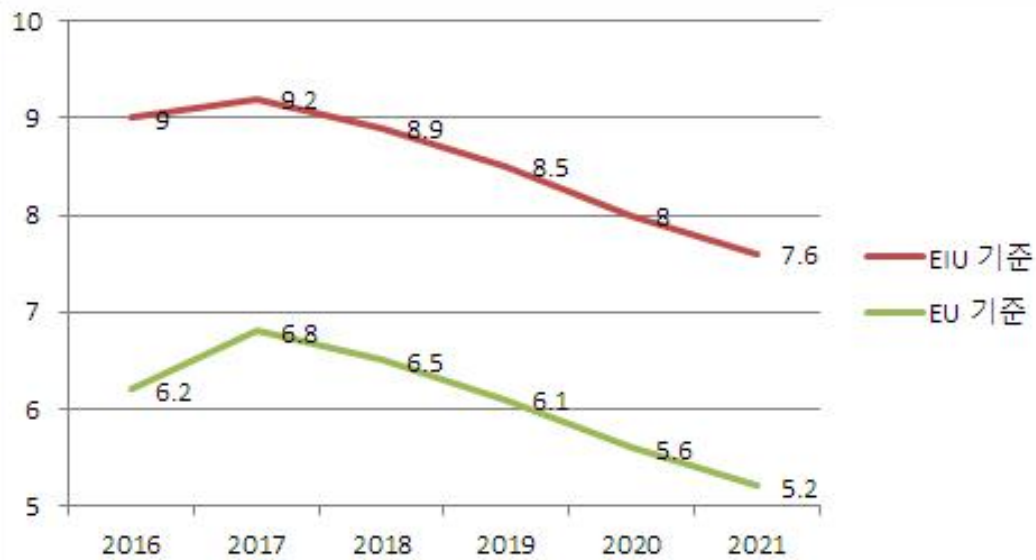
* 자료원: 폴란드 중앙은행(NBP), 2017.3.28일 조회 기준

□ 노동 시장

○ 실업률

- 한 때 20%에 육박하던 실업률은 2004년 유럽연합 가입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08년에는 10%까지 떨어졌으나 2009년 세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 2012년에는 12.8%, 2013년에는 유로존 경제위기 심화, 임시 고용을 창출했던 유로킵의 종료 등으로 고용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며 연평균 13.5%의 실업률을 보임.
- EIU에서는 2016년 실업률을 9.0%으로 보고 있으며, 2017년 9.2%로 약간 증가한 뒤 2018년부터 8.9%, 2019년 8.5%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 실업률 측정 기준이 보수적인 EU 기준으로도, 폴란드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최근 실업률 하락세가 다소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지속 중인 노동임금의 상승과 기업 투자 활성화가 실업률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폴란드 연평균 실업률 전망>



* 자료원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Poland country report', 2017.3.28

○ 최저 임금 : 2017년 월 최저임금 2,000즈워티로 150즈워티 상향 조정

- 폴란드의 최저임금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적용되는 월 최저 임금은 전년대비 8.11% 인상된 월 2,000즈워티(약 60만원)

<폴란드 최저임금(세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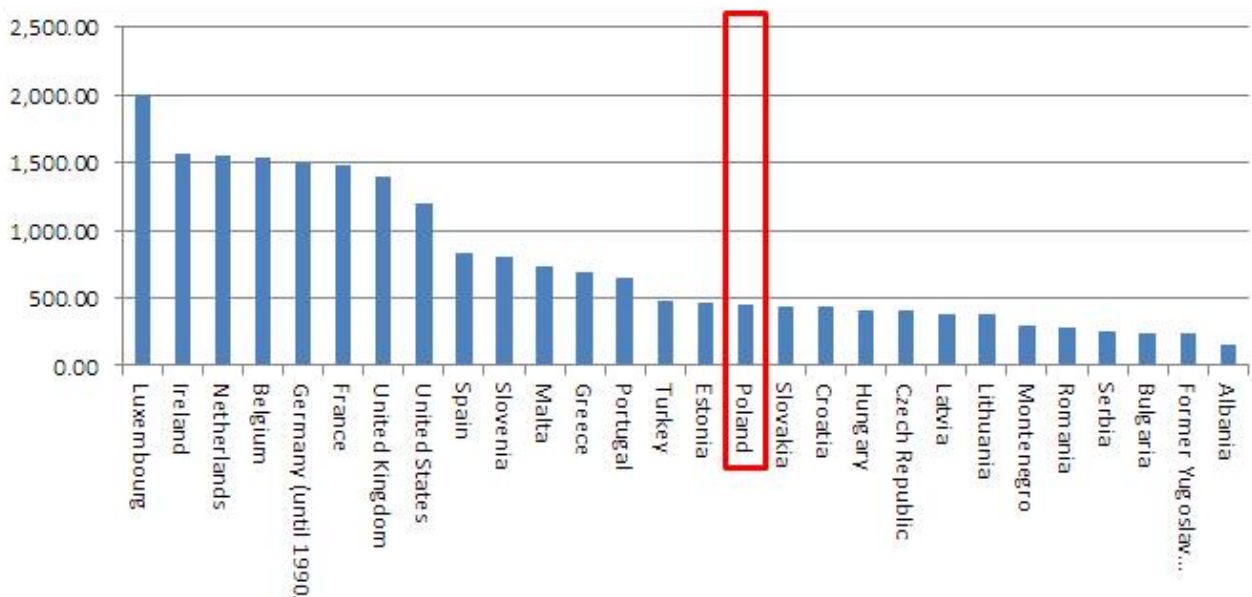
연도	최저임금(PLN)	전년대비 증가율(%)
2008	1,126	20.30
2009	1,279	13.30
2010	1,317	2.97
2011	1,386	5.20
2012	1,500	8.23
2013	1,600	6.67
2014	1,680	5.00
2015	1,750	4.17
2016	1,850	5.71
2017	2,000	8.11

* 자료원 : GUS(폴란드 통계청), 폴란드 노동부 발표자료

- EU 28개국 중 폴란드는 16위로 약 453EUR 수준임. EU 28개국 중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받는 국가로는 룩셈부르크(1,998.59EUR), 아일랜드(1,563.25EUR), 네덜란드(1,551.60EUR), 벨기에(1,531.93EUR), 독일(1,498.00EUR)순으로, 폴란드는 룩셈부르크의 약 23%, 인근국 독일의 약 30% 수준임. 폴란드는 양질의 노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젊은 노동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

<EU 28개국 최저임금 비교>

(단위 : EUR)



* 자료원 : Eurostat, 2017.3.28 조회 기준



II. 우리나라와의 관계

1. 무역동향

○ 전통적으로 대 폴란드 교역은 흑자

- 폴란드와의 교역은 1989년 폴란드의 자유 시장으로 전환 이후, 꾸준히 흑자를 보이고 있음. 대 폴란드 수출 규모가 수입액의 4배 수준임.
- 전통적 대 폴란드 무역흑자국, 주요 수출품은 액정디바이스 및 영상장비 부분품, 주요 수입품은 기타 기계류 및 화학·공업용 도자제품
- 2016년 기준, 대 폴란드 수출액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29억 달러, 수입액은 전년대비 22.2% 감소한 5억 4,137만 달러로 집계됨. 우리나라와 교역국 중,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30위,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50위임.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무기류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수출이 다소 증가했으나 2015년에 이어 여전히 30억 달러 미만에 머물러 있으며, 국내 선박업의 불황으로 운반하역기계, 선박용 부품 등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전체 수입 급감의 요인으로 작용

<한국-폴란드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US\$,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액 (증감률)	4,381.0 (5.6)	4,100.8 (-6.4)	3,678.3 (-10.3)	3,601 (-2.1)	3,850 (6.9)	2,807 (-27.1)	2,912 (3.7)
수입액 (증감률)	273.6 (17.1)	376.2 (37.4)	535.0 (42.2)	775 (44.9)	773 (-0.3)	696 (-9.9)	541 (-22.2)
무역수지	4,107.4	3,724.6	3,143.3	2,826	3,077	2,111	864

* 자료원 : KITA(무역협회)



<우리나라의 對 폴란드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 US\$, %)

순위	MTI코드	품목명	2015년		2016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총계			2,807	-27.1	2,912	3.7
1	8361	평판디스플레이	684	-41.8	549	-19.7
2	7420	자동차부품	192	28.9	274	42.7
3	8211	칼라TV	258	-41.2	222	-14.0
4	2140	합성수지	143	1.4	182	27.3
5	7411	승용차	113	11.9	154	36.3
6	8230	냉장고	80	-11.1	88	10.0
7	9701	무기류	6	4,953.7	67	1016.7
8	6134	아연도강판	97	-36.2	66	-32.0
9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34	-15.0	63	85.3
10	8241	세탁기	44	-17.0	54	22.7
수입 총계			696	-9.9	541	-22.2
1	2429	기타타일및도자기제품	53	211.8	53	0.0
2	7420	자동차부품	31	-27.9	32	3.2
3	2262	의약품	27	3.8	28	3.7
4	5116	위생용품	14	7.7	18	28.6
5	8361	평판디스플레이	19	90.0	18	-5.3
6	116	과실류	9	800.0	16	77.8
7	7121	운반하역기계	35	-39.7	14	-60.0
8	114	곡분	9	12.5	13	44.4
9	7464	선박용 부품	71	20.3	12	-83.1
10	8230	냉장고	9	800.0	12	33.3

* 자료원 : KITA(무역협회)

2. 투자동향

○ 우리나라의 폴란드 직접 투자

- 2016년까지 총 투자 누적액은 약 15억 6,940만 달러(198개사 법인신고)로 우리의 대EU 투자국가 중 누적 투자금액 기준으로 9위를 기록

* 대EU 투자 순위 : 영국-네덜란드-독일-아일랜드-룩셈부르크-프랑스-노르웨이-벨기에-폴란드



<한국의 對 폴란드 연도별 직접 투자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누계*
신규법인 설립수	12	8	4	7	8	10	21	198
투자금액 (천US\$)	55,314	89,840	26,607	21,798	54,962	37,846	54,320	1,569,402

* 주 : '누계'는 1990년~2016년까지 수치 반영, 법인, 지점, 지사 포함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017.3.28 조회 기준

-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우리기업의 폴란드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생산설비 투자이며 자동차, 가전 분야가 주를 이룸
- 최근에는 R&D 분야에서도 우리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타 공공프로젝트 건설이나 에너지 등의 분야에도 투자 논의가 활발함

<對폴란드 주요 한국 투자기업 리스트>

기업명	산업구분	취급품목	투자유형	진출년도
세코닉스	제조업	자동차부품	단독투자	2016년
케이피아이	제조업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개인투자	2016년
제이와이오토텍	제조업	자동차 내외장재	단독투자	2015년
BC시스템	제조업	전기,전자,정밀기기	단독투자	2015년
남양공업	제조업	자동차부품	단독투자	2014년
아프로파이낸셜	서비스업	금융서비스	단독투자	2014년
삼성 SDS	소프트웨어 공급	시스템 통합구축	-	2014년
POSCO 건설	건설/엔지니어링	플랜트	단독투자	2013년
KT 폴란드 지사	정보통신	IT 네트워크 구축	단독투자	2013년
만도	자동차	자동차부품(제동,조향)	단독투자	2011년
삼성전자	가전	냉장고, 세탁기	단독투자	2010년
신창전기	자동차	자동차부품(엔진)	단독투자	2008년
대원강업	자동차	자동차부품(서스펜션)	단독투자	2008년
POSCO	철강	강관가공	합작투자	2007년
LG디스플레이	전자	LCD 패널	단독투자	2005년
LG전자(브로츠와프)	가전	LCD TV, 냉장고	단독투자	2005년
LG전자(무와바)	가전	LCD, PDP TV	단독투자	1999년

* 자료원 : 바르샤바 무역관 종합



III. 비즈니스 출장 가이드

1. 시장특성 및 상거래 관행

○ 중동부 유럽 지역의 최대 시장

-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임. 3,800만 명을 넘는 인구는 1,000만을 갓 넘는 주변의 체코나 헝가리와 비교하여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경제규모는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3개국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임.
- 폴란드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발틱 3국, 체코, 슬로바키아 등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서유럽에서 수입된 완제품 및 원부자재가 이들 국가로 재수출되는 물량도 상당함. 이러한 배경 때문에 폴란드 시장을 범 슬라브 시장으로 확대하여 1억의 시장으로 보기도 함.
- EU 역내의 제조업기지로 급부상 전망
- EU의 낙후지역 개발 지원에 상당한 수혜 가능

○ 막대한 FDI유입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의존 높음 (50% 이상)

- (수출) 외투기업 비중이 53%에 달하며, 임가공/OEM방식의 수출이 주종
- (수입) 외투기업의 원자재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소득증가로 과시적인 소비재 및 내구재(자동차, 전자 등) 수입 활발

○ 전략산업 육성 정책 부재

- 전통 산업인 철강, 석탄, 비철금속 분야의 침체 심화
- 반면, 통신 금융 서비스분야의 외투기업 의존도 급증
- 과거 경쟁력을 보유했던 조선 산업은 노후화 및 민영화 실패 등으로 매각되거나 청산되는 추세임.
- 이동통신, 인터넷 등 IT분야 성장률 괄목



○ 시장의 수요 패턴 변화

- 종래 소품종 대량주문에서 서유럽 형인 소량다품종으로 변화
- 중산층 비중 약화로 여전히 가격시장의 행태 보임
- 국제적 관행의 의거한 상거래 경험 부족에서 탈피
- 신용(L/C)보다 외상(D/A)이나 현금거래 방식 선호비중 높음

○ 갈수록 가격경쟁 가열

- EU 가입과 중국산 등 동남아산 저가품 유입으로 가격인하 압력 가속
- 토종 유통업체들의 가격인하 압력으로 한국산 제품 경쟁력 약화

2. 바이어 접촉 시 유의사항

- 위와 같은 폴란드의 시장특성과 폴란드 바이어들의 거래관행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실제 폴란드 바이어를 접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우리 수출업체들은 일반적으로 폴란드 바이어 정보를 입수하고 간단한 회사 소개서 및 취급품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거래 제안을 하면서 수입의사를 타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해 폴란드 바이어들은 일반적으로 단순 안내, 홍보물로 간주하고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 우리 업체들이 KOTRA를 통해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서 폴란드 바이어에 자사를 소개하는 경우에도 폴란드 바이어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르샤바 무역관에 진행상황 파악 등을 요청하시길 바람.

□ 관련 자료의 우편 송부 시 유의사항

-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회사소개서 및 상품설명서를 폴란드 바이어에 송부하였다 하더라도 바이어의 즉각적인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약



10여일 뒤에 바이어에 다시 지난번 자료의 수신여부를 확인하면서 인쇄된 카탈로그와 관련 자료를 일반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이 필요함.

(폴란드 바이어들의 경우 전자 카탈로그가 있다 하더라도 지참의 편의성으로 인쇄된 카탈로그를 선호하고 있음)

- 이후 다시 우편이 도착되었을 시점에 팩스나 이메일로 자료의 수신여부를 확인하면서 자사 자료에 대한 검토 의견을 문의하고, 이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회신을 요청하는 교신보다는 일단 인내심을 갖고 두세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회사 및 제품의 변경내역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럴 경우 추후 수익기회가 발견될 시 바이어가 재접촉하여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있음.

□ 이메일 및 팩스 사용 시 유의사항

- 일부 바이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폴란드 바이어들은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메일의 한계 상 상대방이 정확하게 언제 열람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중요한 것은 다시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메일을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팩스와 같이 회사의 로고와 연락처가 명기된 레터헤드 양식을 이용함으로써 바이어가 쉽게 송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스팸메일이나 송신자가 확실하지 않은 성의 없는 이메일은 개봉도 하지 않고 삭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팩스 이용 시에도 반드시 레터헤드지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너무 작은 글씨나 수기(手記)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들어 이메일을 해킹하여, 해커가 미세하게 다른 이메일로(예를 들어 ‘-’를 ‘_’으로 바꾼다거나,逗마를 붙인다거나) 잘못된 계좌정보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가로채는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바이어와 이메일로 교신 시, 이메일 주소를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메일 수신 여부를 유선 등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망됨.

□ 바이어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류나 정보

- ① 업체 소개서 : 대표자의 의례적인 인사말보다는 설립연도, 매출액, 종업원 수, 수출액 및 주요 수출대상 지역(주로 EU국가) 등과 함께 간단한 회사 비전 등 한눈에 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정보
- ② 카탈로그 : 일부 업체들은 경비 절감을 위해서 전자 카탈로그를 송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폴란드 바이어들은 인쇄된 카탈로그 선호함.
- ③ 샘플 : 부피가 작고 금액이 낮은 제품의 경우 샘플 송부가 바람직
- ④ 거래조건 및 가격표: FOB, CIF 및 DDU 등 다양한 거래조건에 따른 가격표 준비 필요
- ⑤ 신용상태 : 우리 업체의 경우 D&B 등의 공인된 자료를 활용하여 자사의 공개 가능한 신용상태를 알려줌으로써 상담 및 지불조건 진행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임
- ⑥ 대유럽 수출현황 : 유럽지역에 대한 수출경험이 있는 경우 수출대상국 및 주요 수출대상업체 등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적지 않은 바이어들이 유럽의 중간상을 통해 수입하고 있어, 한국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할 경우 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임
- ⑦ 기술 및 표준규격 : 폴란드의 경우 EU 회원국으로서 CE 마크 획득은 가장 기본적임. 전기제품의 경우 한국기술표준협회에서 발급하는 CE나 독일의 VDE 등이 있을 경우 시중판매가 가능함. 기계분야는 일반적으로 독일의 DIN 규격을 따르고 있으며, 화학제품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수출업체의 보장이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3. 출입국 및 통관 요령

□ 비자

- 한국-폴란드 간 비자면제협정(93.12.24 발효)에 따라 한국인은 비자없이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 가능

□ 입국 절차

- 항공편으로 입국 시 별도의 입국심사 없이 배기지 클레임(Baggage Claim)에서 수화물을 찾은 후 출구로 나가면 됨.
- EU 쉥겐조약 확대로 인해 EU 첫 입국국가에서 입국심사 후 EU가입국 간 이동에는 별도의 입국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단, 쉥겐 미가입국(예: 영국)제외

※ 주의 사항

- 여권(Passport)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해야 입국이 가능함
- 수하물 컨베이어에 자신의 짐이 없을 경우에는 배기지 클레임 홀에 위치한 분실물 사무소(Lost Baggage Office)를 접촉

- 세관심사

- 배기지 클레임(Baggage Claim)에서 수화물을 찾은 후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녹색 출구(“NOTHING TO DECLARE“라고 되어 있음)를 통해 나오면 바로 공항 대합실과 연결됨
- 녹색 출구를 통해 나올 때 세관원이 짐을 보자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세관원이 입국자의 수하물이 너무 많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음. 샘플 등을 카톤 박스에 담아 오는 경우 세관원의 주의를 끌 수 있으므로 샘플도 가급적 일반 여행가방에 넣는 것이 좋음 (검사를 대비하여 비상업송장과 함께 샘플임을 명시)
- 한편, 세관에 신고할 물품(면세 반입 한도를 초과하거나, 1만 유로 이상 현금 보유)이 있다면, 붉은색 출구(“ITEMS TO DECLARE“라고 되어 있음)로 가서 반드시 세관검사를 거쳐야 함



□ 출국 절차

- 항공편 체크인 후 출국심사대에서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마치고 출국항공편 탑승

4. 폴란드 체류 안내

□ 시차

- 동계에는 우리나라보다 8시간 늦으며, 하계(4~10월) 서머타임기간 중에는 7시간 늦음
 - 겨울철의 경우 한국이 오후 9시이면 바르샤바는 오후 1시임
 - 여름철의 경우 바르샤바가 오전 8시이면 우리나라는 오후 3시임

□ 날씨

- 폴란드는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러시아 및 구 CIS국가의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추운 겨울과 그리 덥지 않은 여름의 특징을 갖고 있음
- 봄과 가을은 하루에도 일교차가 크고 날씨 변동이 심하여 방풍복이나 우비 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겨울엔 많은 눈을 예상할 수 있음
- 현재 날씨는 <http://www.wunderground.com/global/stations/12375.html>에서 확인 가능
- 폴란드 월평균 기온 및 강우량

구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간
중부	온도	-4	-2	2	5	13	16	17	19	13	6	2	0	7.8
	강우량	1	21	24	27	57	61	214	23	38	55	39	28	588
북부	온도	-1	2	3	4	9	15	18	20	14	8	4	1	8.4
	강우량	8	23	21	38	89	36	116	4	95	117	31	42	620
남부	온도	-6	1	3	5	14	17	17	18	13	6	3	1	8
	강우량	17	50	20	36	65	91	285	49	53	68	54	65	823



☐ 화폐 및 환전

○ 화폐

- 화폐단위 : 즈워티(Zloty 또는 PLN), 1 즈워티 = 100 그로쉬(Groszy)
- 동전 : 1, 2, 5, 10, 20, 50 그로쉬 및 1, 2, 5 즈워티
- 지폐 : 10, 20, 50, 100, 200 즈워티

○ 환전

- 폴란드에서는 즈워티 이외는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으므로 유로화, 달러화 등은 필히 즈워티로 환전해야 함
- 은행보다는 시내에 있는 환전소(Kantor)에서 환전해야 좋은 환율을 받을 수 있음 (개점시간: 월 - 토 08:00 - 17:00, 별도 환전수수료 없음)

☐ 식수

- 폴란드는 토양에 석회질이 많고 수도관 파이프가 많이 부식되어 수질이 좋지 않으므로 수도물을 일반적으로 음용하지 않으며 마시는 물은 별도로 구입함.
- 생수: Woda Niegazowana (보다 니에가조바나)

☐ 화장실 이용법

- 폴란드 화장실은 대부분 유료화장실로 이용 시 1~2즈워티를 주어야 함
- 남성용 화장실은 붉은색과 역삼각형(▽)으로, 여성용 화장실은 파란색과 동그라미(○)로 표시함

☐ 전화

○ 일반사항

- 폴란드 국가번호는 “48”, 바르샤바 지역번호는 “22”
- 시내전화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지역번호와 함께 전화번호를 다이얼
예) 바르샤바 전화 이용 시: 0(인식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 다이얼



- 한국에서 폴란드로 전화할 경우
예) 001(국제전화출) + 48 + 22(지역번호, 바르샤바인 경우)+전화번호
- 폴란드에서 해외(한국)로 전화할 경우
예) 00(국제전화출) + 82(한국) + 2(지역번호, 서울) + 전화번호
- 공중전화의 대부분은 카드식으로서 시내 곳곳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전화카드(Karta Telefoniczna)를 구매한 후 이용 가능 (동전식 전화는 전용코인 구매 후 이용 가능)
- 수신자부담 전화 방법 : 아래의 2개 통신회사 중 1개를 택일하여 이용
 - KT : 00800-821-1122 (#0 한국교환원 이용 시)
 - 데이콤 : 00800-821-2182
- 호텔에서의 전화이용
 - 호텔 전화요금은 일반 가정요금의 4~5배 수준이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함

□ 대중교통

- 택시 (콜택시 전화: 19191, 9192, 9622, 9644 등)
 - 거리에 정차해 있거나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서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음
 - 호텔 및 식당 등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화로 부르는 것이 편리하며, 5~10분 이내 도착함
 - 웬만한 시내 이동시 요금은 대개 20-40즈워티 정도이며, 밤 10시 이후 및 공휴일에는 할증요금이 부과됨(팁은 의무사항이 아님)
 - 택시 위에 택사회사 번호가 명기된 전광판이 없는 택시를 이용할 경우 바가지요금에 시달릴 수 있음
- 버스, 전차 및 지하철
 - 바르샤바 지역의 경우 1회용 티켓요금은 2.4 즈워티이며 1일, 3일, 7일, 한달 등 다양한 티켓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음. (1회용을 제외한 기타 티켓은 몇 회에 상관없이 버스, 전차, 지하철을 자유롭게 환승 할 수 있음)



- 티켓은 반드시 사전에 키오스크 등에서 구매해야 함. (불시에 검사원이 검사하며, 무임승차 발각 시 벌금 180즈워티를 내야함)

□ 공 항

- 바르샤바 공항(프레데릭 쇼팽공항)은 시내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으며, 차편으로 약 20~30분 정도 소요됨
- 택시를 이용하여 공항에서 바르샤바 시내에 들어올 경우 약 30~40즈워티 정도임. 공항에서 시내까지 운행되는 공항버스(175번)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트램과 지하철은 공항과 연결되지 않음

□ 쇼 핑

- 상점 및 백화점 개점시간
 - 일반상점 : 월 - 토요일 10:00 - 22:00 (일 10:00-22:00)
 - 쇼핑몰 : 월 - 토요일 10:00 - 22:00 (일 10:00-21:00)
- 주요 쇼핑장소
 - Zlote Tarasy 쇼핑몰 : 바르샤바 시내 중심의 가장 큰 쇼핑몰
 - 바르샤바 구시가지 : 시내 중심에서 북쪽 비스와 강변에 소재한 지역으로 민속품 판매점이 다수 소재
- 폴란드에서 살 만한 것들
 - 호박제품 : “북쪽의 황금”이라고 불리우며 장신구/장식품 등으로 유명
 - 보드카 : Zubrowska, Chopin, Belvedere
 - 기타 : 지아야 화장품, 그릇(블레스와비에츠) 등

□ 전압

- 230V 50Hz이며, 우리나라의 핀 두 개 플러그 사용가능(접지플러그 필요)



□ 식당

① 폴란드 전통 식당

※ 폴란드 주요 음식

- 코틀레트 (Kotlet : 한국식 돈가스)
- 샤슈윅 (Szaszлык: 돼지고기, 소고기, 소시지, 양파 등의 꼬치구이)
- 골론카 (Golonka: 돼지족발 요리)
- 스하브 (Schab : 돼지고기 안심요리)
- 비고스 (Bigos: 양배추, 버섯, 소시지 등을 넣고 삶은 요리)
- 바르스츠 (Barszcz: 비트를 갈아 만든 전통 스프)
- 주렉 (Zurek : 밀가루, 마늘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 스프)

식당명	전화/주소	비고
Belvedere	841-2250 Agrykola 1	- 와지엔키 공원에 위치 - 폴란드 전통음식 및 양식
U Fukiera	831-10314 Rynek Starego Miasta 27	- 구시가지(올드타운)에 위치 - 폴란드 전통음식 및 양식 - 유명인사 방문으로 유명한 곳
Przy Zamku	831-0259 Plac Zamkowy 15/19	- 구시가지 입구 왕궁 근처 위치 - 폴란드 전통음식
Polska "Tradycja"	840-0901 Belwederska 18A	- 폴란드 전통음식
Villa Nuova	885-1502 Kostki Potockiego 23	- 빌라누프 궁전 근처 위치 - 폴란드 전통음식

② 한국식당

○ 바르샤바에 소재한 한국식당은 분점을 포함하면 약 10개 정도 됨

식당명	주소	비고
소라	Polna 13, 00-001 Warszawa	- 깔끔한 한정식 - 삼성R&D센터 맞은편으로 시내 위치
아리랑	ul. Nowogrodzka 38	- 순대국, 설렁탕 등 계절메뉴 판매 - 노보텔 호텔 맞은편으로 시내 중심 위치
코리아나	Filtrowa 62, Warsaw	- 런치박스, 다양한 한식 판매 - 공항에서 바르샤바 시내 오는 길목에 위치
명	ul. Solec 81B, CH. ARKADA /P-2	- 영문명 Mei, 김치말이국수, 제육 등 다양 - 한국문화원 맞은편 위치, 올드타운 뒤쪽
신라	549-9152 Walbrzyska 11 lok 159	- 한식당 중 가장 크고 다양한 크기의 방 완비 - 삼겹살, 보쌈 등 각종 한국음식
라스(LAS)	642-1471 Kostki Potockiego 24A	- 빌라누프 궁전 근처 위치 - 삼겹살, 차돌박이 등

③ 일본 및 중국식당

식당명	전 화/주소	비 고
Nippon-Kan	585-1028 Nowogrodzka 47A	- 시내 중심가에 위치 - 스시, 우동 등 다양한 일식
Kiku	Senatorska 17/19, 00-075 Warszawa	-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스시집 - 스시, 사시미, 라멘 등 - 국립오페라극장, 올드타운 인근
Pekin Duck	Drawska 29, 02-202 Warszawa	- 북경오리 등 정통 중식 - 시내에서 차로 약 15~20분 거리

□ 바르샤바 시내 및 근교의 주요 볼거리

○ 구시가지 (Stare Miasto, 1980년 UNESCO 세계문화유산 지정)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점령되었으며, 전쟁 막바지 독일군이 구시가지 전체를 초토화시켜 13세기~18세기에 걸쳐 건설된 이 지역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후 폴란드는 공산정권 시절이던 1951년부터 1966년에 걸쳐 각계각층의 고층 자료를 활용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용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구시가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시켰다.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할 때 13세기의 역사를 20세기에 고스란히 복원해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곳이라며 칭찬한 바 있다. 구시가지에는 바르샤바 왕궁, 수도를 크라쿠프에서 바르샤바로 옮긴 지그문트 3세 동상, 마켓스퀘어, 성곽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폴란드 전통식당과 노천식당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차나 음료를 한잔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 왕궁 (Zamek królewski)



구시가지 입구에 있는 이 왕궁은 폴란드 왕국의 상징으로 13세기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마조비아(Mazovia) 공작의 요새였다. 14세기 중반에 방어용의 큰 탑과 성벽이 세워졌으며, 15세기 초에는 벽돌로 고딕식 왕궁이 세워졌고 여러 개의 부속 건물이 건립되었다. 왕궁 안으로 입장하면, 많은 미술품과 공예품을 볼 수 있고 왕과 왕비의 거주공간도 볼 수 있다. 폴란드의 수도는 원래 크라쿠프였으나, 스웨덴의 침입과 화재로 크라쿠프 왕궁이 큰 손실을 입고 1596년 지그문트 3세에 의해 바르샤바로 천도하였다. 바르샤바 왕궁은 스웨덴의 2차 침입으로 전소되는 등 많은 수난을 당하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다시 새로 복구되었다. 16~17세기에는 이 왕궁은 의회를 포함한 정치의 중심이었고, 폴란드에서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이교도들에게 법적으로 자유를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역사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닌 건물이다. 1918년 독립한 후 왕궁은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었는데 나치의 침략에 의해 파괴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주춧돌만 남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었으나 전후 공산정권 시절 복구되었다.

○ 와지엔키 공원 (Park Łazienki)





18세기 후반 폴란드 최후의 왕이었던 스타니스와프(Stanislaw Augustus Poniatowski)에 의해 만들어진 공원이다. 와지엔키는 ‘목욕탕’이라는 뜻으로 당시 이 지역은 귀족들의 사냥터였는데 사냥을 마친 후 이 곳에서 목욕을 했다고 한다. 스타니스와프 왕은 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 2세의 연인으로 그녀의 후광에 힘입어 왕이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무력하여 현실에서 도망치듯 공원의 조경에 열중했다. 그는 폴란드가 러시아, 프로시아, 오스트리아 3국에 의하여 분할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1795년 폴란드 분할 문서의 조인을 강요당한 뒤 퇴위하여 1798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상을 떠났다. 공원은 나무가 무성하며, 입구 쪽에는 쇼팽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여기서 여름철 일요일이면, 피아노 연주회가 열리기도 한다. 또한 공원 안 연못가에는 수상궁전이 있다.

○ 쇼팽 생가 (Zelazowa Wola)



폴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프레데릭 쇼팽의 출생지이며,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약 5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쇼팽은 프랑스인 아버지와 폴란드 귀족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발휘했던 쇼팽은 7살에 바르샤바로 이사를 갔지만 종종 이 곳을 방문하여 예술가로서의 감성을 연마하였다 한다. 쇼팽이 떠난 후 이 집은 농장 마구간으로 사용되는 등 점차 퇴락해 갔으나, 19세기 말 쇼팽을 추앙했던 한 러시아 음악가에 의하여 복원, 수리되어 쇼팽 기념관으로 바뀌었다. 20세기 들어 발족된 쇼팽 협회가 현재 이 집을 관리하고 있다. 생가 주변의 지역을 포함하여 현재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세계 각국의 쇼팽 음악 애호가들이 각종 식물을 기증하여 약 1만 5,000종이 있다. 한편, 1830년 폴란드를 떠난 쇼팽은 크라쿠프, 프라하, 비엔나, 뮌헨 등을 거쳐 파리에 정착한 뒤 여류 작가인



조르주 상드를 만나게 된다. 상드의 후원 아래 쇼팽은 그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다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후 쇼팽의 심장은 바르샤바로 옮겨졌고, 구시가지 입구에 있는 성십자가 성당에 안치되었다.

□ 무역관 연락처

- 주소 : 21st Fl. Warsaw Financial Center ul. Emilii Plater 53, 00-113 Warszawa
- 전화 : 48-22-520-6230
- 팩스 : 48-22-520-6231
- e-mail : biuro@kotra.pl



www.kotra.or.kr